

교수일반분과/교육B/02/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적 습관의 교육적 의미: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2권을 중심으로

김은우(성균관대학교)

I. 서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고대에서부터 현대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다. 특히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즉 ‘행복’(happiness) 혹은 ‘좋은 삶’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으로 밝히고 있다.

연구자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2권에 드러나는 도덕적 습관에 중점을 두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교육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도덕적 습관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를 향해 가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지나치게 성취나 결과에 치중하는 불균형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다. 교육이 인생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교육을 지향하기보다 지식을 발전시키고 체계화 하는 데에만 치중해왔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입문하면 다시 도덕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지식이 사회에서 실천되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은 학교와 사회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서 적용되는 교육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을 통해 덕을 형성해가는 교육을 지향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추구했다. 그에 의하면, 행복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습관을 통해 덕을 완성할 때 가능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습관이 주는 의미를 교육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덕적 습관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덕과 습관의 관계를 살펴본 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교육적 의미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II.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습관의 의미

1. 반복적 행위로서 습관(ethos)

습관은 본성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을 언급하면서 “습관을 들임으로써 좋은 시민으로 만들”어 지는 것으로 언급한다(Aristotle/ 강상진 외 역, 2018: 52; Aristotle/ edited by Roger Crisp, 2007: 23-24). 이러한 언급에 따르면, 습관은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격적 탁월성(도덕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 이런 이유로 성격을 이르는 ‘에토스’(ethos)도 습관을 의미하는 에토스로부터 조금만 변형해서 얻어진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성격적 탁월성들 중 어떤 것도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Aristotle/ 강상진 외 역, 2018: 51).

습관은 어떤 행위의 익숙함과 관련된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핸들을 잡고 균형을 세우는 반복적 행위를 해야 한다. 이후 아이는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반복적 행위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다. 아이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균형을 잡게 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아이에게 자전거에 대한 익숙함을 주면서 별도의 연습 없이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본성과 습관은 ‘주어져 있는 것’과 ‘주어질 것’의 차이로 드러난다. 감성은 본성에 속하는 것으로 능력(dynamis)이 먼저 주어진 후 활동(energeia)으로 발휘되는 반면 습관은 활동으로 발휘된 이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 봄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과 같다(Aristotle/ 강상진 외 역, 2018: 51). 이와 같이 습관은 어떤 행위를 먼저 발휘하게 되면서 그 행위의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습관(ethos)은 행위자의 반복적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습관은 본성적인 것과 차별화된다. 왜냐하면 습관은 자연적 본성과 다르기 때문이다. 자연적 본성은 일반적으로 이미 습득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습관은 어떤 행위에 의해 습득되어진다. 예컨대 돌이 가지는 본성을 습관을 통해 그 성질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돌은 본성적으로 아래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에 위로 움직이도록 습관을 들일 수 없을 것이다. 만 번을 위로 던져 습관을 들이려 해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불을 아래로 움직이게끔 습관을 들일 수도 없는 일이며, 어떤 것도 그 본성과 다르게 습관을 들일 수는 없다”(Aristotle/ 강상진 외 역, 2018: 51-52). 이는 도덕적 덕의 속성인 ‘습관’을 본성과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습관은 자연 본성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자연 본성은 감각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훈련이 없어도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봄으로써 시각을 획득하거나 자주 들음으로써 청각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감각 능력을 가지고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지, 사용함으로써 가지기 시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강상진 외, 2018: 52). 반면 습관의 형성은 노력을 수반하는 행위들을 해야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습관은 어떤 일련의 행위들 또는 훈련을 ‘축적’ 해서 얻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윤리적 삶의 일차적 목표일뿐이다(황수영, 1998: 254; 김상봉, 2004: 98).

그런데 습관의 형성은 단순히 행위를 반복하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 도덕적 덕은 바른 행동과 ‘올바른 이성(orthos logos)’에 따라 즐거워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욕구구조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덕을 획득하는 것은 인간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을 습관에 의해 훌륭하게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54, 김태엽, 2003: 54).” 즉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요구되지만, 그 습관은 반복의 과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따라서 습관(ethos)은 반복적 행위를 통해 어떤 행위를 익숙하게 만드는 기초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지속적 상태로써 성품(hexis)¹⁾

1) hexis의 우리 말 번역은 품성상태, 성품으로 사용된다. 단, hexis가 echo(영역의 have에 해당함)동사에서 유래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넓은 의미로 ‘획득하여 소유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hexis’를 성품이라고 옮길 수 있는 것은 윤리적인 덕(arete)과 관련될 때만 가능하다(김태엽, 2003: 2). 본 연구에서는 성품의 번역에 따른다.

도덕적인 덕은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일시적 행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향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렇게 얻어진 헥시스(hexis)가 “제2의 천성”에 해당되는 고정적 습관을 의미한다(황수영, 1998: 254). 즉 모든 습관(ethos)은 반복되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항구적인 성품(hexis)으로써 특성을 드러내게 된다. 성품(hexis)은 에토스라고 번역된 관습(ethos)의 활동들로부터 발생된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53).

성품(hexis)의 형성은 반복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한 행위를 연습시킬 때 가능하다.” 성품은 자연적 본성이 갖는 항구성과 고정성을 모방하지만 자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습관(ethos)에 의한 것으로 자연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습득되는 것이다(황수영, 1998: 257). 이렇게 습득된 성품은 본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우리의 본성 안에서 하나의 성품으로 자리하게 된다. 성품은 잠재된 능력이 외부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본성처럼 내재화 되는 것이다.

성품은 영혼 속에 생겨나는 것 중 하나이다. 감정(pathos), 능력(dynamis), 성품(hexis)이므로 덕은 이 셋 중 하나일 것이다. 감정은 욕망, 분노, 두려움, 대담함, 시기, 기쁨, 친애, 미움, 갈망, 시샘, 연민, 일반적으로 즐거움이나 고통이 동반하는 것들이다. 또 능력이란 그것에 따라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들로, 가령 화를 낼 수 있거나 슬퍼할 수 있거나 연민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능력들이다. 성품은 그것에 따라 우리가 감정들에 대해 좋게(eu) 태도를 취하거나 나쁘게(kakos)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노와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느슨하다면 우리는 나쁘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며, 중용적이라면 제대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성이나 악덕은 모두 감정이 아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탁월성과 악덕에 따라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61-62).

덕은 그 행위에 따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누어진다. 집을 잘 지음으로써 건축가가 될 것이며, 잘 못 지음으로써 나쁜 건축가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 좋은 성품을 키우는 것은 유사한 활동에서 생겨나기에 어릴 때부터 습관을 키워야 한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53). 도덕적 덕이 형성되는 시기와 지적 덕의 형성 시기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적인 덕과 도덕적 덕은 습관의 형성 여부에 크게 좌우될 수 있기에 어린 시기부터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런 과정은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것이고 덕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덕이 있다는 것은 본성 외에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품은 자연스럽게 ‘덕(탁월함)’의 활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위해 덕(virtue/excellence)을 추구하는 것이다. 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중심주제이기도 하다(Sarah Broadie, 1991: 57). 예컨대 행복한 삶은 어떤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행복한 인간이 탁월한 것을 발견해가면서 실천할 때 덕스러운 삶으로 향유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권의 결론 부분에서 “행복은 완전한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어떤 활동²⁾”으로 정의된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46). 여기서 탁월성(arete), 즉 덕이란

2) 좋음 들은 통상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왔다. 즉 외적인 좋음이라고 이야기되는 것, 영혼에 관계된 좋음, 육체와 관련된 좋음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그 세 유형이다. 우리는 영혼에 관계된 좋음이 가장 진정하고 으뜸가는 좋음이라고 말하고, 행위와 영혼의 활동을 영혼에 관계되는 좋음으로 규정한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32).

인간 고유의 기능(이성에 순응하는 영혼의 활동)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한다(임정환, 2017: 48). 성품은 습관의 도움으로 내재화 되어서 행위로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본성에서 영혼의 활동으로 자리하게 되면 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성품이 습관화 되는 것은 아니다. 습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가야 가능하다. 즉 성품은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발휘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습관의 형성은 그런 차원의 배움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배움은 그 안에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대에서 언급되는 배움의 의미와는 차이를 드러낸다.

III.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덕과 습관의 관계

1. 지적 덕과 습관의 관계

행복은 덕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덕은 습관과 관계한다. 즉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탁월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탁월하다는 것은 육체의 탁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탁월성을 언급하는 것이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46). 인간의 영혼은 이성의 유무기준으로 이성적인 부분과 이성이 없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영혼 중에서 우선, 비이성적인 부분은 욕구나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성에 순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과 관련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성이 없는 부분 중 식물적인 것으로 영양과 성장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성은 그 기능에 따라 그 자체로 이성적인 부분이다. 예컨대 “이성의 말에 훨씬 더 귀를 잘 기울이는 절제 있는 사람과 용감한 사람”이 해당된다. 이는 지혜(sophia)나 이해력,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가 해당된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50). 이성은 순수한 이성과 이성에 순응해서 부합할 수 있는 비이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덕은 이성의 차이에 따라 나누어진다. 덕이 이성적인 부분을 탁월하게 발휘하게 되면 지적인 덕이 된다. 지적인 덕은 그 기원과 성장을 주로 교육이나 이론적 탐구에 두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51).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들 중에서 실천적 지혜(phronesis)를 강조한다. 실천적 지혜는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돕는 이성적 활동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천적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하다.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

탁월성 또한 실천적 지혜와 영리함의 관계와 유사한 것을, 즉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기는 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즉 영리함과 실천적 지혜가 있듯, 품성(성품)적인 부분에도 두 가지, 즉 자연적 탁월성과 엄밀한 의미의 탁월성이 있을 것이다. 이들 중 엄밀한 의미의 탁월성은 실천적 지혜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 (중략) 탁월성은 단순히 올바른 이성에 따른(kata) 품성상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한 품성상태이기도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것들에 관련한 올바른 이성이란 (다름 아닌) 실천적 지혜이다. (중략) 실천적 지혜 없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성격적 탁월성 없이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230-231).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자”, 즉 프로니모스(phronimos)가 되어 가는 것이다. 좋은 사람은 윤리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면서

자신의 행동방식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다(William J. Prior, 1991/ 오지은 역, 2011: 258).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이 되라고 교육받아 왔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반복적 행위,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음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내적인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 상태는 반복적 행위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실천적 지혜는 일정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올바른 이성에 순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실천적 지혜 없이는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도덕적 덕 없이는 실천적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박재주, 2012: 75).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는 실천적 지혜에 의해 옳은 행위를 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여 습관을 들임으로써 유사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동일한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성품을 함양하고, 실제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실천에 의해 함양된 유덕한 성품에 따라 실천된 행위이다(장동익, 2019: 127).

그렇다면 습관은 지적인 덕을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습관은 지적인 덕을 형성하는데 올바른 이치를 마음에 생기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지혜를 위하여 명령하는 것이지 지혜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신적인 부분이 실제적인 활동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230-232; 박재주, 2012: 75-76).

2. 도덕적 덕과 습관의 관계

영혼의 다른 어떤 본성 역시 이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성의 도움을 받고 있다. “자제력 있는 사람”과 “자제력 없는 사람”도 이성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적인 덕을 탁월하게 발휘한다는 것과 자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성과는 무관하게 보여도 이성을 잘 따를 때 형성될 수 있는 덕이 도덕적 덕이다³⁾. 도덕적 덕은 본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덕을 통해 본성은 다듬어질 수 있다. 도덕적 덕은 지속적인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써 ‘자유인다움’이나, 절제가 포함된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48-51). 올바른 행위를 행함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박재주, 2012: 77).

어떤 사람이 문법에 맞는 어떤 것을 만들어 내되 ‘문법적으로’(grammatikos)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문법가가 될 것이다. 문법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법 지식에 따라 해내는 것이고, 또 기예와 탁월성의 경우 서로 유사한 것도 아니다. 기예에 의해 생겨난 것들은 자신들 안에 ‘잘 됨’(to eu)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어떤 성질을 갖추고 생겨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 반면, 탁월성에 따라 생겨난 것(행위)들은 설령 그것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의롭거나 절제 있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행위자 또한 어떤 상태에서 그것들을 행해야만 정의롭거나 절제 있게 행해지는 것이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59-60).

문법가는 문법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면, 덕에 따라 행위 하는 사람은 이성만 따르

3) 이 때 자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이성에 순응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해야 도덕적 덕을 발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7권 제1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자제할 줄 아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따져서 헤아린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또 ‘자제력 없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따져서 헤아린 것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 때문에 그것을 하는 데 반해,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 이성 때문에 그것들을 따르지 않는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235).”

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행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위가 없는 덕은 좋은 사람으로서 덕을 갖출 수 없고,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마저 상실할 수 있다. 행위자는 성품을 통해 도덕적 덕을 형성해 가야 한다. 덕은 그 자체로 좋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기능을 잘 발휘해서 과도하지 않도록 중용을 지향하는 것이다(박재주, 2012: 78; 임정환, 2017: 53).

중용(mesotes)이란 성품에 따라 우리가 감정들에 대해 좋은 태도와 나쁜 태도 사이의 중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간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어떤 중간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성품에 따라 중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산술적으로 비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산술적 비례에 의해 선택되는 것은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 각각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중간”이다(Robert L. Arrington, 1998/ 김성호 역, 2003: 130).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덕에서 중용을 강조한 것인가? 우리가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절함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다. 이 때의 불균형은 도덕적 덕이 중간을 유지 못하는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갖는 것이” 중용이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65). 여기서 마땅하다는 것은 적절함을 가리킨다.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용의 역할이다. 예컨대 우리가 욕망하는 것, 화를 내는 것 또 연민을 갖는 등의 모든 감정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용이고, 도덕적인 덕은 중용의 도움을 받을 때 그 탁월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65; 유원기, 2009: 34). 그러나 모든 중용이 적절하게 잘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위와 감정이 다 중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66). 우리의 행위와 감정, 욕구는 실천적 지혜를 따르지 않게 되면 악한 것들을 행하는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원인은 중용을 따르지 않거나 무지로 인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다(임정환, 2017: 55). 도덕적으로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선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습관은 덕을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습관은 도덕적인 덕을 형성하는데 실천적 행위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습관은 덕의 함양을 위해 행위를 꾸준히 실천하도록 돕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좋은 성품을 마음에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IV.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습관의 교육적 의미

1.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학교에서 사회로 연계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교육이 사회로 연장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습관은 어릴 때 받는 교육이라는 선입견과 인지적으로 발달한 시점부터 습관은 소홀하게 취급된다. 왜냐하면 습관은 교육의 주된 목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아이가 어릴 때는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 연산을 익히기 위해서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연산 능력을 키워나간다. 그 이후 아이가 인지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이해에 중점을 두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습관이 교육적 영역에서 소외된다는 것이다. 어릴 때만 좋은 습관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입문하게 되면 지식과 행위는 분리되는 현상을 자주목격하게 된다. 즉 우리

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학교에서만 쓸모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덕의 형성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의 성품으로 완성된다.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습관적인 도덕적 삶은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 가? 그것은 “암기되고 계속 실천되고 있는 규칙들이나 교훈들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습득해가는 교육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행복이 “삶의 전 과정에서 완성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습관 역시 삶의 과정과 함께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박재주, 2012: 84-87).

2.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덕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덕으로 이행을 강조했다. 지적인 덕이 그 덕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행위를 하게 될 때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덕은 실천이 먼저 이루어질 때 그에 따른 합당한 능력이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는 실천윤리를 강조하지만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의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돌아보게 만든다. 왜 우리는 학교를 졸업 후 사회에 입문하면 교육받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르게 행위하는 것을 강조한다. 올바른 행위는 “이성적 기능에 도덕적 덕의 개념을 연결” 시키는 것이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34; 장의관, 2011: 8).

습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첫째, 현재의 성품을 전적으로 실천적인 예행연습의 산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훈련이나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어떤 습관이 길러지는 것이다. 둘째, 도덕적 습관화는 무의식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다. 분노가 마땅한 경우에는 분노를 느끼도록 배워야 한다. 따라서 습관화는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상황에 대한 평가를 수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습관화는 실천적 지혜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장동익, 2018: 166).

3.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의지를 바르게 발휘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절제한 사람은 언제나 눈앞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합리적 선택에 끌려가고, 자제력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면서도 눈앞의 즐거움을 추구하니 말이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241).

의지가 나약한 경우는 무절제한 사람이 아니라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다. 무절제한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옳은 것에 따라 행위 할 뿐이다. 단지 무지한 사람은 앞에 놓여 있는 즐거움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선에 대한 앎이다. 반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이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알고 있는 경우이고, 자신의 행동이 옳과 불일치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의지의 나약함은 “앎이 아니라 의견(doxa)을 가지고 있기에 즐거움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akrasia 또는 무절제의 문제로서 선하다고 인식된 것을 행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다고 인식된 것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Robert L.

Arrington, 1998/ 김성호 역, 2003: 147).”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욕구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235-237), 결국 의지의 문제는 윤리적 삶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의지가 바르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제력은 자신의 욕구가 나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올바른 이성 때문에 그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Aristotle/ 강상진 외, 2018: 235). 의지의 문제는 욕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면서 인식과 의지를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다.

V. 결론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다만, 우리는 훈련을 통해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학 될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적절하고 올바른 습관에 의해 계발된다면 덕으로 실현될 수 있고 그릇된 훈련에 의해서는 똑같은 능력이 악으로 귀결될 수 있다(오지은 역, 2010: 252). 따라서 도덕적 습관의 교육적 의미는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봉(2004). 『호모에티쿠스』. 경기: 한길사.
- 김태엽(2003).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서 덕(arete)과 성품(hexis)의 의미.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 박재주(2012). 『인격함양의 도덕교육』.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임정환(2017). 『행복으로 보는 서양철학: 행복에 대한 철학적 접근』. 서울: 씨아이알.
- 유원기(2009).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월한 행동”. 『철학연구』 111. 25-49.
- 장동익(2019). 『덕이론: 그 응용 윤리적 전망』. 서울: 씨아이알.
- 장익관(2011). “좋은 사람과 좋은 시민의 긴장: 아리스토텔레스 정치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6. 5-29.
- Aristotle. *Ethica Nicomachea*. 강상진·김재홍·이창우(2018).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도서출판 길.
- Aristotle. edited by Roger Crisp(2007). *Nicomachean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황수영(1998).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자연과 습관. 『현상학과 현대철학』 10. 251-271.
- Robert L. Arrington(1998). *Western Ehtics: An Historical Introduction*. 김성호 역(2003). 『서양 윤리학사』. 서울: 서광사.
- Sarah Broadie(1991). *Ethics With Aristotle*.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 J. Prior(1991). *Virtue and Knowledge-An introduction to Ancient Greek Ethics*. 오지은 역(2011). 『덕과 지식, 그리고 행복』. 경기: 서광사.